인공지능으로 농작물 병해충 진단 · 처방한다

농촌진흥청, 장수군 농기센터서 '농작물 병해충 인공지능(AI) 영상진단 · 처방 앱 서비스' 현장 시연회 개최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1일,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사과 전시 재배지에서 '농작물 병해충 인공지능(AI) 영상진단 · 처방 앱 서비스'(인공지능 병해충 영상진단 서비스) 현장 시연회를 개최했다.

인공지능 병해충 영상진단 서비스는 실제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이나 바이러스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면, 이를 즉시 진단하고 방제법 등을 제공하는 휴대전화 앱 서비스 시스템이다.

이날 현장 연시회에는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을 비롯해 도원, 시군센터 관계관과 장수군 청년농업인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과, 고추 등 작물의 주요 병해충 피해증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진단하는 앱 시연을 지켜봤다.

인공지능 병해충 영상진단 서비스 사업은 앞으로 10년간 국내에서 재배하는 136개 주요 농작물의 병해충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이 가운데 1단계로 2024년까지 과수, 채소, 밭작물 등 31개 작물 344개 병해충 · 바이러스(병해 136, 해충 183, 바이러스 25)를 진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 진단 · 처방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할 계획이다.

2024년 상반기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앱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전국 156개 농업기술센터 예찰 요원들이 현장 실증 중이다.

또한,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NCPMS)에 탑재해 인터넷 웹 서비스도 동시 제공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병해충 또는 진단하기 어려운 식물 바이러스를 현장에서 촬영 즉시 진단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밝혔다. 아울러 영상진단 인식정확도 역시 평균 96.6%(사람의 인지 정확도 95.3%)로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농촌진흥청은 인공지능 병해충 영상진단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인공지능 영상 인식 분야 전문가와 병해충전문가를 중심으로 '병해충영상진단기술개발협의체'를 구성하고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날 연시회에 참석한 농업인들은 "농업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병해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다."라며 "현장에서 피해 원인을 바로 알 수 있고, 방제 방법도 알려주는 휴대전화 도우미가 생겨 농사짓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 같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병해충 피해가 클 것에 대비해 전국적인 병해충 발생상황을 농업인과 정부가 공동으로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이 구축됐다."라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병해충 상시 예찰, 예측 기술 개발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기 방제를 통한 농산물 생산, 공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백화점 유휴공간에 'ART SQUARE IN JEONJU 문화 공간'을 오픈했다.

롯데백 전주점, 예술작품 테마별 전시

10월 19일까지 'ART SQUARE IN JEONJU 문화 공간' 운영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지난 18일부터 10월 19일까지 2달간, 전북문화관광재단과 연계해 지역 예술가 10명을 선정, 백화점 유휴공간에 각 작가의 예술작품을 테마별로 전시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롯데백화점 전주점이 'Art square in Jeonju'라는 테마로 도내 공공기관 · 민간기업 등에 역량 있는 예술가 들의 작품을 임대 · 전시함으로서 고객들로 하여금 예술의 가치를 이해하고, 지역 예술인을 매칭해 새로운 활동 무대를 경험하는 취지로 마련하였다.

또한, 이번 전시를 통해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롯데백화점 전주점의 전시 공간 마련 및 지역 예술인의 작품 홍보 등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역 예술작가들의 창작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탰다.

롯데백화점 전주점 영업기획팀 박병익 팀장은 "지역예술의 문화적인 감성 소통 활동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도내 예술인들의 작품 활동을 지원하면서 도민들의 풍요로운 예술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농협, 을지연습 실시

"비상사태 시에도 농협 기능 지속 유지 위해 적극 연습"

전북농협은 21일 오전 5시 50분 전 직원 대상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2023 을지연습에 돌입했다.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21일 오전 5시 50분 전 직원 대상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2023 을지연습에 돌입했다.

전북농협은 을지연습 기간 동안 비상사태 시에도 전북농협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시 전환절차, 위기 상황을 가정한 사건메세지 훈련, 소방훈련, 전시 식량 체험을 실시할 예정으로 국민 생활 안정과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목표로 연습에 임한다.

김영일 본부장은 "최근 우리를 둘러싼 안보상황은 불안정한 상황으로 국가 안보와 우리 가정의 안전한 삶을 보호하기 위해 연습 간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등 농협 소관분야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연습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23 을지연습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민 · 관 · 군 4,000여 기관, 48만여 명이 참가한다.

/김옥기 기자

진안고원몰, 신제품 출시로 '인기몰이'

흑돼지 · 딸기칩 · 버섯피클 등

진안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 '진안고원몰'이 특색 있는 신제품 출시로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성장과 눈에 띄는 성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진안고원몰은 2021년 10월 운영을 시작해 현재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120여 생산농가(업체)의 330여 상품을 등록 · 판매해왔으며, 그중에서도 현재 일시품절 상품을 제외한 230여 상품을 전시 · 판매 중이다.

특히 지난 8월 중 진안고원몰은 스마트스토어와 자사몰을 비롯한 제휴 쇼핑몰과 오픈마켓 진출 등을 아울러 누적 매출 30억원 달성 및 누적 방문자 수 12만명 돌파를 기록하며, 비약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홍보 및 판매채널의 다각화와 동시에 생산자와 지자체 공직자가 함께하는 정기적인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를 꾸준히 진행하며 소비자와의 소통 및 신뢰도 제고에 힘쓰는 등 차별화된 판매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신제품 중 진안고원 흑돼지는 고랭지에서 생산한 축산물로 쫀득한 육질과 풍부한 단백질 함량으로 인기를 얻고 있으며, 동결건조 딸기칩 '딸기킥'은 첨가물 없는 진안고원 햇딸기의 풍미와 향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또한 '버섯마루'의 신개념 버섯파를은 새콤달콤한 맛과 아삭한 식감으로 기존의 버섯 절임요리와 차별화된 색다른 맛을 선사하고 있으며, 구운달걀과 메추리알은 다이어트 열풍 및 건강식 선호도 상승과 함께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군만의 특색 있는 고품질 농특산물은 물론 다음 달부터 판매개시 예정인 지역 관광 및 문화 서비스 상품 등 종합쇼핑몰로 거듭나 소비자들에게 만족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도소상공인희망센터 신규 입주업체 모집

예비 창업자 대상 창업 공간 · 성장 프로그램 지원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웅, 이하 경진원)에서 운영중인 전북도소상공인희망센터(이하 '희망센터')에서는 오는 21일부터 신규 입주업체를 모집한다.

희망센터는 소상공인 창업 · 보육 전문기관으로, △사무실 임대 △사업화 지원 △역량강화교육 △세무컨설팅 등의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성공 파트너 역할을 해오고 있다.

입주 신청자격은 전북도에 거주 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6년 미만 사업자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정업체는 기본 1년 계약 후 연장 평가를 통해 최대 5년 동안 입주할 수 있다. 단, 도박 · 투기 등 사행성 조장업종 및 불건전업종, 금융 · 보험 · 주점 · 숙박 · 유흥업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 제외업종은 입주할 수 없다.

이번 모집에서는 14㎡ 3실, 30㎡ 3실 모집 예정이며, 서류 및 대면평가를 통해 선정된 업체(예비창업자)는 사무공간과 각종 지원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진원 홈페이지(www.jbb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은행, JB플러스 정기예금 정기적금 '처음이면' 금리우대

정기예금 2000억 · 정기적금 3000좌 … 한도 소진 시 종료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오는 9월 30일까지 'JB플러스 정기예금 · 정기적금' 상품가입 개인 및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금리우대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JB 플러스 정기예금은 계좌당 100만원 이상(고객당 최고 20억원)이며 가입 기간 3개월제는 최고 3.40%, 6개월제는 최고 3.85%, 9개월제는 최고 3.87%로 단기예금으로 판매된다.

또 정기적금은 1인당 1계좌로 월 10만~500만원이며 가입 기간 6개월제는 최고 4.10%, 12개월제는 4.20%로 기간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이벤트 기간 중 우대금리 조건은 상품 가입 시 마케팅 동의 개인 및 법인 고객(전원)에는 0.20%, 가입일 직전 1년 동안 원화 예 · 적금 첫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정기예금에는 0.20%, 정기적금에는 0.30%의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판매 한도는 정기예금 2000억원, 정기적금 3000좌이고 한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예정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최근 단기 예적금 상품을 찾는 고객이 증가해 본 이벤트를 준비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와 혜택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